

꿈에 스님만 봐도 옷이 오른다더니

성파 스님의 '성파 칠화전' 30일까지 인사아트센터에서 열려



성파 스님의 금강채담.

칠문화는 요즘 차(茶)문화처럼 대표적인 불교문화 중 하나이다. 경상도 속담에는 '꿈에 스님만 봐도 옷이 오른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칠문화의 요람은 본래 사찰이었다. 고려시대에 사찰을 중심으로 활발히 발전하던 칠문화는 조선시대의 억불숭유정책으로 인해 위축되고 말았다. 일본이 칠문화를 발전시키는 동안 한국의 칠문화는 퇴보해 갔다.

이런 한국의 칠문화를 다시 부흥시킨 곳은 다름 아닌 통도사 서운암이었다. 칠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통도사 서운암에는 국내 유일의 칠공방을 마련했다. 21세기 사람들이 칠문화를 다시 알아가는 데에는 통도사 서운암의 성파 스님이 중심역할을 했다. 성파 스님은 전통 공예기법에 있어 남다른 연구와 활용으로 이미 명성이 높다. 전통 제지술과 천연염색으로부터 도자 심

육만 대장경 제작에 이르기까지, 스님의 전통 공예에 대한 천착은 범인의 수준을 뛰어 넘은지 오래다. 스님의 이 같은 전통 공예 분야의 천착은 곧 수행으로 이어진다. 얼마 전 산수화 개인전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듯이, 스님의 예술적 감각과 기량은 엄청나다. 이미 스님의 공예작품은 종류와 수량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스님은 칠공예 외에도 감지금니 사경, 서법, 도예, 천연염색, 산수화, 칠화 등을 통해 구도적 경지를 표현해왔다.

한국인은 질 위에서 자라고, 질 위에서 생애를 마감한다고 과언이 아닐 정도로, 칠문화는 한국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옷칠의 경우, 천연도료로 수명이 길기 때문에 생활용품에서부터 악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활용된다. 또한 방습 효과, 살균력, 살충력 등이 뛰어나 목재 용품에 효과적으로 이용됐다.

1983년부터 10여 차례에 걸친 스님의 전시는 사람과 밀접했던 칠문화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 미술평론가 윤범모는 "성파 스님의 칠문화는 현대사 가들에게도 권하고 싶은 분야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칠문화 증흥이라는 원력을 갖고 있는 성파 스님의 작업은 미술 영역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미술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보통 유화는 덧칠하면서 표현되지만, 칠화는 덧칠한 부분을 깎아 내면서 작업한다. 이런 속 색깔의 우리나라 칠

화의 가장 큰 매력이다. 이런 내부의 아름다움을 찾는 것은 바로 법열(法悅)이다.

성파 스님의 작품 특징은 무엇보다 색채 구사의 화려함을 들 수 있다. 원색의 자유자재한 활용은 화면 구성을 다양하면서도 깊이 있게 표현한다. 원색의 자유자재한 구사는 유화 재료 이상의 독특한 효과를 느끼게 한다. 색채 이외에도 스님만의 정확한 묘사력은 대상을 형상화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또한 구성의 짜임새 또한 뛰어나다.

칠문화의 선도자로 알려진 성파 스님의 작품은 5월 25~30일 서울 인사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성파 칠화전'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스님의 칠화 작품들은 근래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작업한 성과물이다. 길이 6m이상의 대작 3점을 포함한 20여 점의 칠화 작품들이 감동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 작품은 알뜰미술판을 상쳐 내어 바닥처리를 하고 부드러운 기와 가루와 옷을 섞어 발라 시멘트 이상의 견고함을 보인다. 삼베를 바르거나 반복해서 칠하는 작업과정은 스님의 수행과정이다. 모든 칠화 작품들은 수행을 바탕으로 이뤄져, '불교' 그 자체라 말할 수 있다.

전시는 '선칠보이(禪漆不二)'라는 성파 스님의 화두를 엿볼 수 있는 동시에, 미술계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칠문화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자리이다. (02)736-1020 이은정 기자

소금으로 들려주는 매나리 가락



대금연주가 이생강

우리 시대 악성으로 불리는 대금연주가 이생강의 새 음반이 출반됐다. 중요 무형문화재 제45호 대금산조 예능보유자 이생강은 최근 우리의 역사 안에서 자라온 아름다운 음악 유산을 알기 위해 '우리 소리' 시리즈 앨범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앨범은 우리 소리 4집 '소금 소리'이다. 소금은 약 1350년 전 신라왕 때부터 대금, 중금과 함께 신라 3축이라 불린 악기이다. 서양 악기 피콜로와 비슷한 음색을 가지고 있는 이 악기는 현대의 악기와 어울려 크로스오버 협주에 폭넓게 사용될 수 있는 전통악기중 하나다.

특히 이생강의 소금 연주는 이미 국악과 양악계에서 모두 인정받을 만큼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강원도 산간지역의 매나리 가락에 가장 잘 어울리는 악기가 소금이라고 강조하며, 밝고 신선한 느낌의

매나리조를 자주 연주해 왔다.

이번 앨범에서 역시 물 흐르듯 풀어가 는 이생강만의 독특한 매나리 가락이 잘 담겨있다. 소금 특유의 맑고 맑은 소리와 더불어 절제된 애조로 그만의 독특한 기교들을 느낄 수 있다.

앨범에는 정선아리랑, 한오백년 등 대중적인 전통민요를 비롯해 아일랜드 민요인 '안개이슬', 동요 '반달' '오빠생각', 가곡 '기다리는 마음' '봉선화', 대중가요인 '소양강 처녀' '목포의 눈물' 등 모두 47곡이 담겨있다. 이생강은 이번 앨범 발표에 대해 "우리의 아름다운 음악 유산이 오늘날 문화적 정서에 깊숙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고 싶었다"며 "많은 대중들이 우리 소리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길 바란다. 다음 세대를 위한 음악적인 재조명과 더불어 우리 소리 정리 차원에서 이번 앨범을 출판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괘불을 본다

995cm 규모 내소사 대형 괘불, 8월 28일까지 불교회화실서 전시

큰 재나 초파일 같은 대중이 많이 모이는 날, 의식용 불화로 쓰이는 대형 괘불을 도심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됐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영나)이 8월 26일까지 서화관 불교회화실에서 보물 1268호 내소사 괘불 테마전을 연다.

이번 전시는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평상시에는 보기 어려운 사찰 소장 문화재를 일반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기획됐다. 내소사 괘불은 1700년 6월에 그려진 것으로 중앙의 석가모니부처를 중심으로 보살과 여래가 타원형으로 에워싼 7존 형식이다.

괘불의 높이는 995cm으로, 괘불의 등장 인물의 광배 좌우에 붉은색 테두리를 마련하고 여기에 금색 안료로 각각의 이름

을 써 넣어 조선 후기 괘불 도상 연구에 귀중한 자료역할을 한다. 영산교주석가모니불, 문수대보살, 보현대보살, 관음대보살, 세지대보살, 증정모범다보야래, 극락도사 아미타여래 등이 함께 자리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2006년 '법당 밖으로 나온 큰 불화, 청곡사 괘불' 이후 매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괘불전시회를 열고 있다. 원래 괘불은 부처의 힘으로 질병이나 기아, 전쟁, 천재지변 등과 같은 현실의 고난을 극복하기 위한 불교의식용으로 쓰여졌다. 조선시대에는 천도 의식이 가장 왕성하게 이뤄졌으며, 천도 의식 중에서 49재, 예수재, 수륙재, 영산재 등이 성행했다. 괘불은 의식을 행할 때 멀리서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대형으로 제작됐다.

내소사 괘불의 도상은 (법화경)에 근거 하면서도 당시 간행됐던 영산회 의식집의 거불편에 거명되는 인물들과도 일치해, 불교 의식집에 근거한 도상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괘불의 하단에는 괘불조성에 참여한 49명의 시주자들이 기록돼 있는데, 이 가운데 주목되는 성씨는 포산곽씨다.

바탕시주자 곽선홍, 공양시주자 곽수홍, 광기홍 등은 내소사 괘불을 조성할 당시 견제에 거주했던 형제들이다. 괘불을 조성할 당시 큰 아들 선홍은 이미 1697년 7월 6일에 사망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따라서 괘불은 먼저 사망한 선홍의 나머지 일족들이 망자의 천도를 위해 1700년 6월에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괘불을 그린

화승은 천신을 비롯한 승선, 각용, 새형, 난익, 해안, 국경 등 모두 7명이다.

내소사 괘불은 18세기 괘불을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18세기 괘불의 양상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작품이다. 국립중앙박물관 측은 "당시 사람들의 염원을 담아 그린 '내소사 괘불'을 통해 불교문화에 한층 더 친숙해 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02)2077-9000 이은정 기자



'대장경' 이 오페라로 나뉜다

고려대장경 1000년의 해 맞아, 오페라 '대장경' 제작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6월 3~4일 공연

고려대장경이 오페라로 부활했다. 경상남도음악협회는 고려대장경 1000년의 해를 기념하기 위해 오페라 '대장경'을 제작했다. 공연은 6월 3~4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공연된다.

오페라 '대장경'은 소설가 조정래의 장편소설 (대장경)을 원작으로 김봉희 각색, 최천희가 작곡을 맡아 2막 4장으로 작품으로 완성시켰다. 풍고군에 의한 초조대장경의 소설과 새로운 대장경

의 제작, 그리고 대장경의 완성 과정을 그리는 오페라 '대장경'은 불교적 색채와 한국전통음악을 활용한 오페라다. 특히 공연은 서울에서 지방으로 공급되던 공연문화에서 벗어나 지방의 창작 오페라가 서울로 진출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오페라 '대장경'에는 오페라 전문연출가인 방정욱이 연출을 맡았으며, 송기창, 김종흥, 이정원, 손정희, 이윤숙, 김희정, 정능화, 김성진, 류현승, 한상식, 김화정, 김철호,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인천오페라합창단, 창원시립무용단 등이 위대하고 장엄한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02)580-1300 이은정 기자

'한글세대·영어세대를 위한 유식학 출간!'

Mind-Only Science

오직 마음일 뿐인 **유식의 세계**

지은이 고 목

신간

연락처
도서출판 운주사
T.02-3672-7181
유식사상연구회
T.055-353-6142

신국판 300쪽
₩12,000

미리마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한인동 요기마실

민속죽염 23년 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함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굵은
가 루 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죽염 230g 78,500원

2번 굵은
보급형 민속죽염 1kg 35,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

※ 3만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죽염 10g) 증정.

주문 및 상담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번지 www.msjy.co.kr

주얼드림 은(銀)의 모든것

주얼드림은 은(銀) 99%로 만든

염주·단주·금강저·반지·목걸이·핸드폰줄·백옥·청옥·자수정·호한석 등 기타 다양한 제품생산 기업입니다.

제품소개를 지면으로 다하지 못하오니 연락주시면 책자(카다록)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반야심경 목걸이 ①, ②, ③, ④
반야심경 목걸이 ⑤
반야심경 목걸이 ⑥
반야심경 목걸이 ⑦
반야심경 목걸이 ⑧
반야심경 목걸이 ⑨

호인석단주 ⑩, ⑪
지수정단주 ⑫
은단주 ⑬
은단주 ⑭
금강저 목걸이 ⑮
음·회전 반지 ⑯
귀·회전 반지 ⑰

주얼드림 (석도) · 분사 공장 및 영업부 : 경기도 고양시 대자동 793-2번지
031)969-9495 / 070-4128-9495 / 011-441-9495

인터넷 쇼핑몰
NAVER 주얼드림 검색
www.jeweldream.co.kr